

뜨거운 울림 준 영화 '1987'...이들이 꿈꾸는 민주주의

# “젊은이들, 민주화 열사 기억해 주길”

### 故 이한열 열사 모친 배은심씨 영화 불 엄두 안 나 관람 포기 강동원 보고 아들 생각 많아 나

“수백 번 고민했는데, '1987' 영화를 볼 엄두가 나질 않아 결국 포기했어요.” 고(故)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78)씨는 지난 5일 광주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영화관람은 못했지만, 이 영화를 통해 국민이 1987년 6월 항쟁의 아픔과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배씨는 6월 항쟁으로 아들이 숨진 지 30년이나 흘렀지만 영화에서 그려지는 당시 상황을 아직도 마주할 마음준비가 되지 않아 영화 관람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배씨는 영화를 보지는 않았지만, 영화

속에서 이한열 열사를 연기한 배우 강동원 씨에 대해서는 애뜻한 마음을 드러냈다. 배씨는 “강씨가 두 번이나 집으로 찾아와 한열이 역할을 하겠다고 했을 때, 흰찰떡 한 톨과 잘생긴 얼굴을 보면서 한열이가 살아 있다면 이런 모습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주변에서) 연기를 잘했다고 하니 고마울 뿐”이라고 말했다. 배씨는 또 지난해 4월 7일 강동원씨와 만났을 때 일화도 소개했다. 배씨는 “지난 1987년 7월 광주 금남로에서 진행된 노제 때 파랑새 한 마리가 만장 위에 한참 앉아 있다가 날아가는 모습을 사진을 통해 봤

다”면서 “강동원씨와 함께 망월동 한열이의 묘소에 갔을 때도 박새 한 마리가 추모비에 한참 앉아 있다 날아가는 것을 나중에 사진을 통해 확인했다. 한열이가 1987년에는 엄마를 보고 싶어, 이번에는 자신을 연기할 강동원씨를 응원하러 온 것 같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배씨는 “국민이 촛불로 세상을 바꿨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한열이 뿐 아니라 수많은 희생이 있었다”면서 “그 시대를 겪어보지 못한 젊은이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힘써온 열사들을 잊지않고 기억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김한영기자 young@

# “깨어있는 시민의 참여로 민주주의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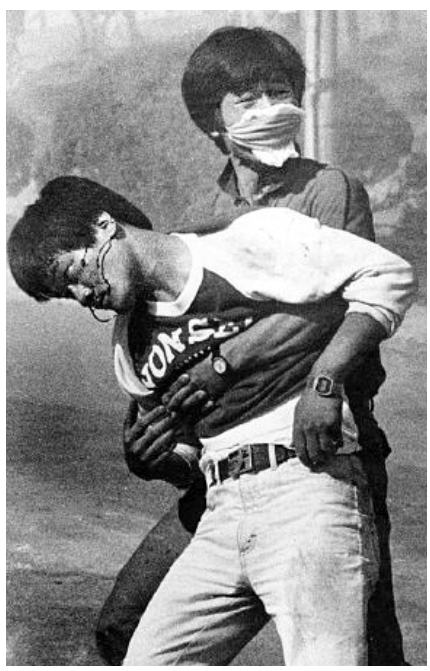
### 이한열 열사 부측한 이종창씨 전경이 던진 돌에 맞아 뇌수술 퇴원하던 날 한열이 떠나

“깨어있는 시민들이 권력을 견제하고 참여할 때 비로소 민주주의는 발전합니다.” 이종창(52)씨는 지난 6일 광주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영화 '1987'을 계기로 많은 이들이 깨어나 줬으면 한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그는 1987년 6월 항쟁의 기록적 역할을 한 고(故)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에 맞아 쓰러질 당시 이 열사를 부축한 인물 <사진>로, 현재 경기도 파주 가람 도서관장을 맡고 있다. 피를 흘리며 축 처져있는 이한열 열사를 이 씨가 부축하고 있는 장면은 사진으



로 세상에 알려져 큰 충격을 줬다. 이씨는 “한열이와 일면식도 없었지만, 엄혹했던 그 시절에는 누구나 그런 상황이면 안전하게 옮기려고 했을 것”이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씨는 부상한 이 열사를 옮기고 난 뒤 자신도 전투경찰이 던진 돌에 뒤통수를 맞아 뇌수술을 두 차례 받는 등 무병 생활을 해야 했다. 이씨는 “다쳐서 의식이 없을 때 한열이와 5일간 중환자실에 함께 머물렀다”면서 “일반 병실로 옮겨져 20일 가량 치료를 받은 뒤 퇴원하기로 한 날(1987년 7월 5일) 한열이가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이씨는 “지난달 30일 딸과 함께 영화

'1987' 관람을 위해 영화관을 찾았고, 영화속 박종철군 아버지가 임진강에 아들의 유해를 뿌리는 모습을 보고 잠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며 “고개 숙여 우느라 결국 소리만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1987년 당시 최루탄 속에서 구호를 외치며 유언물을 뿌리고 선배들이 잡혀가는 힘든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라 영화를 제대로 볼 수 없었다”면서 “며칠 후 아내와 다시 한번 영화를 봤는데, 그때 역시 제대로 볼 수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씨는 “민주주의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촛불집회로 말수 있던 민주주의는 참여로 발전한다”면서 “87년 6월항쟁의 경험과 기억이 우리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 “권력 앞 직업윤리 지킨 보통 사람들 조명”

### 김경찬 시나리오 작가 '연희' 빼고 영화 99% 실패 전남대서 비디오로 5·18 접해

“이 영화는 역사적 사건을 담고 있기 때문에 주요한 사건들이 손상을 받지 않는 것에 중점을 두고 시나리오를 썼어요. 불과 30여 년 전 일이기 때문에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아 실제로 대사 하나까지 왜곡하지 않고 훼손되지 않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1987'의 시나리오를 쓴 전남대 출신 김경찬(48) 작가는 전화 인터뷰에서 “처음엔 다른 작품을 구성중이었는데 왜 6·10 항쟁과 관련된



작품은 하나도 없냐는 주변사람의 말에 내가 한번 해보아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영화는 99% 실패입니다. 고(故) 박종철 군 아버지가 유골을 뿌릴 때 하는 말, 남영동 배공본실에서 박치된 치안감이 선배들 정복국장을 때리는 장면까지 사실에 근거를 뒀죠. 연희의 존재 빼고는 거의 다 실패라고 봐야하죠.” 그는 극중 여대생 '연희'(이태리)에 집중했다. “그해 6월 저는 전남대대부고에 다녔는데, 전남대에서 시위를 하는 대학

생들이 학교 운동장으로 도망쳐 왔어요. 전경들이 학생들을 무차별하게 구타하고 끌고 가는 모습을 유리창 너머로 봤죠. 저도 극중 연희처럼 전남대 신방과에 입학한 후 선배들이 보여주는 비디오로 5·18 민주항쟁을 접했습니다.” 김 작가는 또 “영화의 대주제는 6월항쟁이지만 소주제는 직업윤리다”며 “직업윤리를 바탕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으려고 했다”고 말했다. “사실 저는 영화를 통해서 직업윤리에 대해 말하고 싶었어요. 영화 속에서 누군가는 직업윤리를 지키고 누군가는 직업윤리를 저버리잖아요. 영화 속 김사나 의사, 기자 같은 사람들은 권력의 압력에도 자기

직업윤리를 지킨 사람들입니다. 교도관 한 병용은 직업윤리로 바서는 불법인데, 대의를 위해 그걸 버린 사람이죠.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직업윤리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이 제자리에 있을 때,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발전할 거라고 생각해요.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에 주목하면서 영화를 바꾸셨으면 합니다. 또 영화를 본 관객들이 스스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지 답을 구했으면 합니다.” 영정이 주연의 '카트' 시나리오를 썼던 김 작가는 일제로부터 자주독립을 했던 1945년과 1950년 한국전쟁을 소재로 한 역사극 두 편을 준비 중이다.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 장·차관만 3명...중량급 대표단

### 내일 남북 회담...평창 넘어 관계개선 논의 관심

9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에서 열리는 고위급 당국회담을 앞두고 남북이 중량급 인사들로 구성된 대표단 구성을 완료했다. 먼저 남측은 지난 6일 조명준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천혜성 통일부 차관과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 장·차관만 3명이 들어간 대표단 명단을 북측에 건넸다. 이번 회담이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는 물론 오랫동안 경색을 면치 못했던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데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남측은 고위급 회담에서 평창올림픽의 북한 참가 문제부터 마무리를 지으면 남북관계 개선 문제로 넘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북한 역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직접 평창올림픽 대표단 파견 용의가 있다고 밝힌 상태라 이 문제부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된 논의가 시작되면 남측은 군사분계선 지역의 우발적 충돌 방지 방안과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먼저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둘 다 지난해 7월 우리 정부가 북측에 제의했다가 답을 듣지 못한 사안이다. 회담의 진행 상황에 따라 북한의 비핵화 문제도 회담 테이블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북측은 김 위원장이 신년사 때 언급했던 한미연합훈련 및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중단을 들고나올 수 있다. 이 와 함께 경제 완화나 대북 지원,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거론할 수 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는 남북관계 개선 문제든 고위급 회담에서 파견 문제든 논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려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출전 종목, 선수단 규모 등에 대한 협의를 이뤄져야 한다. 북한 장용 IOC 위원이 스위스로 건너가 이번 주 초 IOC 핵심 관계자들과 이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려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출전 종목, 선수단 규모 등에 대한 협의를 이뤄져야 한다. 북한 장용 IOC 위원이 스위스로 건너가 이번 주 초 IOC 핵심 관계자들과 이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 “문화전당장 조속한 선임음”

### 시민단체들 성명

지역 시민단체들이 5차 공모가 무산된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장의 조속한 선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역문화교류추진재단(재단)은 7일 성명에서 “새정부에서도 전당장 5차 공모가 무산되고 선임 절차마저 잠정 보류됐다”며 “보수정권 10년 동안 망가지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이하 조성사업)의 정상화를 기대했던 지역의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단은 “국책사업에 걸맞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와 추진단의 위상 제고, 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의 인력 확대, 7기 조성위원회의 조속한 구성, 문

화전당장과 아시아문화원장의 조속한 공모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단은 조성사업 정상화와 문화전당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광주시·광주시의회·시민사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광주민족예술단체총연합회도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문체부는 5차례 공모과정을 거치면서 거듭 난항을 겪어야했던 근원을 면밀하게 살피는 성찰을 토대로 새로운 전당장 선임 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체부는 광주의 정체성에 근거한 문화전당의 건립절차와 가치를 바탕으로 문화전당장 선임 자격 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임야

바로 삽니다. 010-6838-1230

## 돈 불분 대출

(주)동현태양광 대표 최대, 동북면동 2016-금강원 062, 분양이자를... 연 27.9%(월 2.3%) 이내, 추가비용 없음, 초기상환조건 없음, 대출시 가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동원시도명칭: 광주광역시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339, 201호 상담문의. 010-3605-5000

##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계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 혈당조질

### 식후 혈당 상승억제!!!

식후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줄수 있음    고식형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가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

식후 2배속삭~ 하루 2번으로 식후 혈당상승 억제 OK!!!

삼성제약헬스케어(주) 당디펜스(D.Defense)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1일 4캡슐로 혈당조질이 충분합니다.

### 당 디펜스

이런분들께 권해드립니다

- ▶혈당조질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식후 혈당 상승이 걱정되시는 분
- ▶평상시 당수치가 높아 혈당조질이 잘 안되시는 분 ▶혈당을 조절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 ▶생활습관이 불규칙하신 분

010-3598-7080

## 태성공인중개사

상가 / 상가주택

- 치평동 5층 건물(보증금 1.7억 월980만) 매 25억원
- 금호동 7층 건물(보증금 5.4억 월1,300만) 매 32억원
- 용봉동 4층 건물(보증금 1억, 월745만) 매 17.5억원
- 하남동 4층 건물(보증금 6.2억 월2,200만) 매 53억원
- 월계동 1.2층 상가점포 720㎡ 매 28억원 (보 2억원, 월1,200만 포함)
- 산정동 2층 건물(보증금 2억 월1,100만) 매 27억원
- 월곡동 5층 건물(보증금 4억 월 540만) 매 25억
- 쌍암동 5층 건물(보증금 3억 월 1,580만) 매 43억
- 송정동 물류창고 대1,000㎡, 건500㎡ 매 24억
- 장덕동 3층 원룸 대291㎡, 건485㎡ 매 7억(보1억 월318만)
- 장덕동 3층 원룸 대262㎡, 건400㎡ 매 8.5억(보3천만 월402만)
- 산정동 4층 원룸 대455㎡, 건660㎡ 매 13.7억(보8천 월591만)
- 쌍촌동 4층 상가주택 대192㎡, 건490㎡ 매 9.5억

토 지

- 서구 서창동 대지 2중주거지역 1760㎡ 매 13억6천
- 광산구 남산동 대지 1중주거지역 421㎡ 매1억5백만
- 임암동 효천1지구 근생용지 320㎡ 매 10억5천
- 화정동 대지 준주거지역 1,000㎡ 매 50억
- 산정동 생산녹지,창고용지 3,810㎡ 매 20억
- 광산구 대산동 계획관리지역 전 30,000㎡ 매 45억 (물류창고, 야적장 적합)
- 남평읍 우산리 계획관리지역 담 3426㎡ 4억2천만원(모빌허가 등)
- 담양군 대전면 성산리 1중주거지역 전 1,637㎡ 4억6천 (창고적합)
- 담양군 수북면 수북리 계획관리지역 전 5,000㎡ 매 8억5천
- 담양군 봉산면 기곡리 전 3,000㎡ 매 1억8천만원

매물 접수, 상담 환영

문의 010-5536-0382 정현철  
광산구 장덕동 롯데마트 부근

## 태양광 발전소 삽니다! 팝니다!

태양광 100K·200K·300K·500K·1메가

- ▶ 견적 설계 · 시공(지상 임야 노지, 아파트, 주택)
- ▶ 태양광 부지 매입합니다.

태양광 발전소 관리 전문

- ▶ 각도 조절, 잡초 제거(풀깎, 애초기)
- ▶ 모듈 청소(발전량 상승) 관리해드립니다.

태양광 발전 전문기업

※ 영업사원 모집

### (주)동현태양광ENG

☎ 063-225-1116  
상담 010-8813-4770